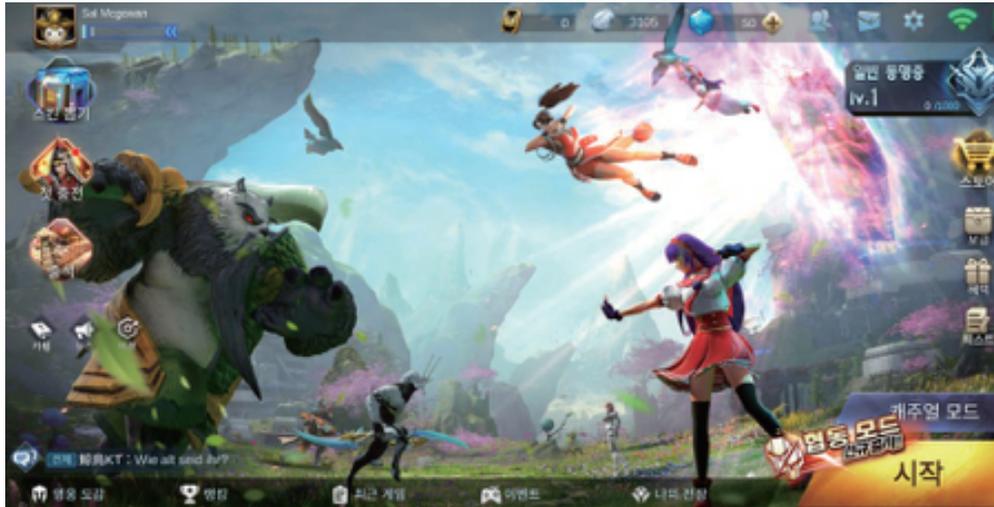


SNK 대표 캐릭터, 오토체스 장르 게임에도 등장!

- SNK, 오토체스류 모바일 게임 'AOE: 레드 타이드' 콜라보 선보여
- SNK 인기 캐릭터 '시라누이 마이', '아사미야 아테나', '나코루루' 등장!



SNK인터랙티브(대표 전세환)가 중국 게임업체(Beijing Zhaoxiguangnia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와 손잡고 당사 보유 캐릭터를 선보이는 콜라보를 실시했다.

이번 콜라보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토체스류 모바일 게임 'AOE: 레드 타이드(영문: Arena of Evolution: Red Tides)' 로, 지난 해부터 글로벌 게임 개발사 Game Science측이 개발한 게임이다. 이 게임은 약 60명의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세 번의 진화를 통해 끝까지 살아남고, 화려한 보상을 수령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 게임의 전신 '아트 오브 워: 레드 타이드(영문: Art of War: Red Tides)' 는 전세계 154개 국가와 지역의 앱스토어에서 2017년을 빛낸 최고작(Best of 2017)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업데이트한 'AOE: 레드 타이드' 는 S4 시즌 돌입에 맞춰 SNK인기 캐릭터 '시라누이 마이' 와 '아사미야 아테나' , 그리고 '나코루루' 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한껏 모았다.

S4시즌 기간 중 게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게임을 즐기면서 매 라운드마다 지급되는 골드를 획득, SNK 대표 캐릭터 3명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넓은 전장에서 게임 이용자들은 지휘관으로서 선택한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배치하여 전투에 승리하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SNK 인터랙티브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콜라보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오토체스류 모바일 게임과 진행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의 게임회사들과 지속적인 IP 제휴 및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OE: 레드 타이드는 중국에서 이미 지난해 10월에 SNK와 콜라보를 진행해 ‘시라누이 마이’, ‘나코루루’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리뷰를 기록하며 향후 지속적인 콜라보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